



속담, 얼마나 아니



() 초등학교

이름: ()

() 학년 () 반 () 번

- 1 가는 날이 장날
- 2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3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른다.
- 4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5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6 가뭄에 콩 나듯 한다.
- 7 가재는 게 편
- 8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 9 간에 가서 붙고 쓸개에 가 붙는다.
- 10 간에 기별도 안 간다.
- 11 간이 콩알만 해지다.
- 12 갈수록 태산
- 13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14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 15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16 개밥에 도토리
- 17 개천에서 용 난다.
- 18 겉 다르고 속 다르다.
- 19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어
- 20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21 고생 끝에 낙이 온다.
- 22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23 고양이 보고 생선가게 지켜달라 한다.
- 24 공든 탑이 무너지랴.
- 25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 26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27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
- 28 굴뚝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 29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30 그림의 떡
- 31 금강산도 식후경
- 32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 33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34 꼬리가 길면 밟힌다.
- 35 꿩 대신 닭
- 36 꿩 먹고 알 먹고

-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한다.
-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자기에게도 좋은 반응이 돌아온다.
-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둬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된다.
- 제 결점이 큰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탓함을 이르는 말.
- 말이 길어지다 보면 마침내 말다툼까지 하게 된다는 말로, 말이 많은 것을 경계하라는 뜻.
- 어떤 일이 드물에 일어나거나 물건이 드물게 있음을 이르는 말.
-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준다.
-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걱정할 일이 끊이지 않는다.
- 지조 없이 아무에게나 형편에 따라 아부하는 모습을 이르는 말.
- 먹은 양이 너무 적다.
-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진다.
-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 여럿 중에서도 모양 좋고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뜻.
- 성공하고 나서 어려웠던 지난날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 뽐낼을 비꼬아 이르는 말
- 평소에 흔하던 것도 막상 필요해서 쓰려고 구하면 없다.
- 여럿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 마음에 품은 생각과 행동이 같지 않아서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함을 이르는 말.
- 마음 속으로만 공공거리고 애 타해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한다.
- 강한 사람끼리 싸우는 통에 약한 사람이 해를 입게 된다.
-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
-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공언히 의논함을 빗대어 이르는 말.
- 귀중한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겨 둔다.
- 정성을 다한 일은 헛되지 않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
-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함을 이르는 말.
-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해야 값어치가 있다.
- 갓 들어온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몰거나 해치거나 한다.
- 아무리 미련하고 못한 사람이라도 한가지 재주는 있음을 이르는 말.
- 정해진 원칙이 없어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됨을 이르는 말.
-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배가 고파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무엇을 까맣게 잘 잊어 버리는 사람을 핀잔하는 투로 이르는 말
- 아무 관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 다른 일과 때를 같이 하는 바람에 무슨 관계라도 있는 듯 의심을 받는 경우
- 아무리 몰래 해도 나쁜 일을 오래 두고 하면 끝내는 들키고야 만다.
- 자기가 쓰려는 것이 없으면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 쓸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한 번에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

37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	남의 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38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뜻.
39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아주 무식하다.
40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늘 말조심해야 함을 이르는 말.
41	내 코가 석자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
42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 뺄어라	모든 것을 미리 살펴 다가올 결과를 생각해 가면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43	누워서 떡 먹기	어떤 일이 해 내기 매우 쉽다는 뜻.
44	누워서 침 뱉기	남을 해하려고 한 짓이 오히려 자기에게 미침을 이르는 말.
45	눈 가리고 아웅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함을 이르는 말.
46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나이 들어서 시작한 일에 몹시 열심인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47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 다 된 죽에 코 빠뜨리기	잘 되어가던 일을 갑자기 망쳐 실패하게 됨을 이르는 말.
48	달걀로 바위 치기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
49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신에게 이로우면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버린다는 뜻.
50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상대를 속이려 한다.
51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애쓰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52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죄 지은 사람이 찢려서 모르는 사이에 드러낸다.
53	독 안에 든 쥐	궁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
54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현실성 없는 허황된 계산은 손해만 가져온다.
55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비록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56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배나 많이 받는 경우
57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크게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남다르다는 뜻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일은 처음부터 잘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8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운 데 있는 일을 먼 데 있는 일보다 오히려 잘 모른다.
59	땅 짚고 헤엄치기	일이 매우 쉬움
60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일이 다 된 것처럼 여기고 미리 기대한다.
61	퐁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준다.
62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더 잘하는 사람 많으니 잘난체하지 마라.
63	마른하늘에 날벼락	갑자기 당하는 불행한 일
64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
65	말이 씨가 된다.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된다.
66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말.
67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게 된다.
68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불 난다.	되지 못한 사람이 건방지고 좋지 못한 짓을 한다는 뜻.
69	못 먹는 감 찢려나 본다.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야 남도 쓰지 못하게 망가뜨리는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다.
70	무소식이 희소식	소식이 없는 것은 무사히 잘 있다는 뜻으로 곧 기쁜 소식이나 다행했다는 말.
71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다.
72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못된 사람 하나가 온 사회를 어지럽힌다.
73	민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
7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
75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둘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한다.
76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 하면 버릇이 된다.
77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은 순식간에 퍼지니 말을 삼가야 한다.

78	방귀 편 놔미 성낸다.	자기가 잘못하고서 오히려 남에게 성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9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주된 것보다 딸린 것이 더 크다.
80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하면 훨씬 쉽다.
81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게 됨을 이르는 말.
82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해야 한다.
83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몹시 가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서 돈을 뜯어낸다.
84	병 주고 약 준다.	일이 안 되도록 방해하고는 도와주는 척한다.
85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겉모양을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
86	불난 집에 부채질	이미 어려운 상황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이르는 말.
87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
88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든다.
89	빛 좋은 개살구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음을 이르는 말.
90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91	산 넘어 산	한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 뒤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 쓰는 말.
92	새 발의 피	지극히 적은 분량을 이르는 말.
93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어떤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도 그 분야에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된다.
94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된다.
95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럴 리야 없겠지’ 하고 속으로 믿고 있는 일에 큰 낭패를 겪게 된다.
96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한번 들인 버릇은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다.
97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소문에 비해 실제의 모습이 보잘 것 없다는 말.
98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
99	소 / 쇠 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귀담아 듣지 않음을 가리키는 말.
100	쇠불도 단김에 빼랬다.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하였으면 망설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101	수박 겉핥기	내용은 제대로 모르고 겉만 슬쩍 보아 넘긴다.
102	시작이 반이다.	어떤 일یدن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마무리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말.
103	식은 죽 먹기	어떤 일이 아주 하기 쉽다는 뜻.
104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부질없는 일에 집착해서 막상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
105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십 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
106	싼 게 비지떡	값이 싼 물건은 당연히 그 품질도 나쁨을 이르는 말.
107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
108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109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다.
110	아닌 밤에 홍두깨	예고도 없이 뜻밖의 일이 생겨남을 이르는 말.
111	약방에 감초	어떤 일이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 또는 꼭 있어야 할 물건
112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못난 사람일수록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망신시킨다는 말.
113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들다.
114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
115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걸린다.	여름철 감기에 걸린 사람을 조롱하는 말.
116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애초에 이루지 못할 일은 단념해야 한다.
117	옥의 티	아무리 좋아도 한 가지 결점은 있다는 말.
118	웃이 날개다	꾸미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다.

119	우물 안 개구리	경험이 적으므로 저만 잘난 줄 알고 주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120	우물에 가서 송늬 찾는다.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빈다는 뜻.
121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어떤 일이든 한가지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
122	울며 겨자 먹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해야 만 하는 일 또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
123	웃는 낮에 침 뱉으랴.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쁘게 대할 수 없다.
124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나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
125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126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도 잘한다.
127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말을 해라.
128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129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어떤 것에 한 번 크게 놀라면 비슷한 것만 봐도 겁이 난다.
130	작은 고추가 맵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진 경우를 일컫는 말.
131	제 눈에 안경이다.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제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
132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욕을 당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엉뚱한 데서 새삼스럽게 화풀이를 한다.
133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듣기 싫은 충고라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34	쥐구멍에도 벌 들 날이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도 좋은 날은 온다.
135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업신여기면 가만있지 않는다.
136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여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
137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본래 제 천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똑같다.
138	짚신도 짝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제 짝이 있다는 말.
139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무엇에나 순서가 있으니, 그 차례를 따라 해야 한다.
140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자기가 좋아하는 곳은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
141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무슨 일이든 그 시작이 중요하다.
142	칼로 물 बे기	다투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 곧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
143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
144	티끌 모아 태산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
145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육의 정이 깊다.
146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무엇을 잘못해 놓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147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만 봐도 전체를 안다.
148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생각이 밝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다.
149	하늘의 별 따기	매우 힘든 경우를 가리키는 말.
150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닥쳐도 살아나갈 희망은 반드시 있다.
151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철없이 함부로 덤빈다.
152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대강 듣는다.
153	한 술 밥에 배부르랴.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
154	함흥차사라	어떤 일로 심부름을 간 사람이 한 번 떠난 뒤로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다는 뜻.
155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일을 해서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
156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나타난다.
157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158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적은 힘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이르는 말
159	황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다.	어찌다 우연히 이루어거나 알아맞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